

헌신과 감사

'2017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와 만민찬양 8주년 관련 소식 및 만민찬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목사 간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1)

주일성수는 온전한 심일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됨과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라 할 수 있다.

축복을 부르는 입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입술의 말을 천사들을 통해 날마다 기록해 하시어 훗날 그 고백대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누가 이 행복을 주시는 걸까?”

가정에 행복을 찾은 백상기 집사와 차량 사고에서 보호받은 조소영 집사, 만민찬양을 통해 축복받은 네팔 하블 와이바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774호 2017년 2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권능의 사역 이뤄가길!” 2017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



지난 1월 29일 주일 저녁예배 시, 우리 교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감사로 '2017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를 드렸다.

헌신자는 주의 종, 레위족(교회 직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에스더회(주의 종 사모들의 기관), 기도제물연합회(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기관) 총 9,350명이었으며, 마산, 대전, 구미, 여수, 광주, 대구, 춘천 등 43개 국내 지교회에서도 함께하였다.

GCN방송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방송 되는 가운데 대표자 특송과 헌신자 전체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목자의 권능'(요 14: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목사는 “각자의 분야



에서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제한 후,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유익만을 구해야 하며 둘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하고 셋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고 증거하였다. 이날 헌신자들은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구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마음을 이뤄 권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하나님의 선물, '만민찬양' 8주년 맞아

2월 3일 금요일예배 1부 시, 만민찬양 8주년을 기념하여 예능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목사가 '만민의 찬양'(사 43: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그간의 곡들 중 몇 곡을 선별하여 연합찬양팀과 닥시오 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만민찬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 선지자를 통해 노래를 지어 주신 것처럼(신 31:19~22),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찬양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

율과 가사를 주신 곡들을 일컫는다.

2009년 2월 3일 '주님의 고백'을 시작으로 현재 무려 314곡에 이르는 '만민찬양'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의 수많은 성도가 만민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마음이 정화되며 천국 소망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는다고 고백한다.

영어, 히브리어 등 총 11개 언어로 번역·보급되고 있지만 해외 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원어인 한국어로 부르면서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이들이 많다.

“러시아어로 번역한 만민찬양을 부르노라면 행복해집니다!”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목사 | 이스라엘

1991년, 저희 부부는 주님을 영접한 후 벨로루시 국립 음악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저희는 다양한 찬양 앨범을 제작하고, 많은 기독 행사와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며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2009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스라엘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만민찬양의 영성과 감동, 훌륭한 찬양문화를 체험하였지요.

그리고 이 찬양이 러시아어권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아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할 것이라는 생각에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1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러시아어를 사용하지요.

저는 아내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한

국어와 러시아어는 언어군 자체가 다르고 한국의 특별한 문화가 담겨 있어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가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그대로 번역하고자 노력했고, 러시아어식 표현의 리듬과 하모니도 생각해야 했지요. 어떤 때는 몇 시간을 기도하며 가장 합당한 표현을 찾기 위해 궁구해야 했습니다. 곡이 완성되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요.

어느덧 러시아어로 번역한 만민찬양이 200곡이 넘습니다. 만민찬양을 번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며 회중과 함께 만민찬양을 부르노라면 영혼들이 은혜받는 모습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맑고 아름다운 찬양을 전 세계 영혼들이 부를 날을 소망하며,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
 (출애굽기 20:8~11)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와 우주 등 육의 세계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활한 영의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2.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환난과 각종 재앙에서 보호해 주셨지요.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1장 14~15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뜻을 안다면 결코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

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축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알기에 옛세 동안 힘써 일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안식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3.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

구약시대에는 천지창조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하신 후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당시 안식일로 지킨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삼일 만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영적인 빛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한 대로 ‘참 빛’은 하나님 본체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참 빛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듯이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 곧 주일은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비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요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과 흑암 속에 살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참 빛이 되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요일을 안식일 곧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고, 비로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일이 안식일이 될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12절에 “...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 일 년 되고 흙 없는 숫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일요일에 드리는 ‘일 년 된 흙 없는 숫양’이란 하나님의 어린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곡물의 첫 이삭’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고전 15: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얻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요.

때가 이르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과 영생, 부활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계명을 지켜 행해야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을 의미하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 부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성수’는 온전한 십일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빌 3:20).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 안식일의 유래와 의미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이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계명을 주시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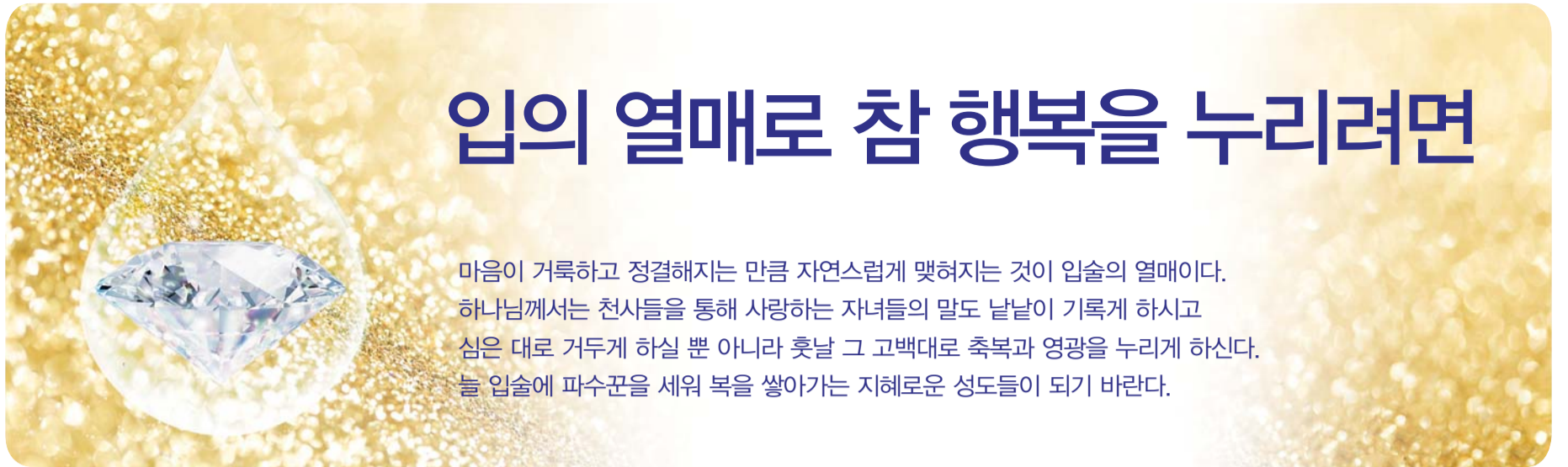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입의 열매로 참 행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입술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도 낱알이 기록해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훗날 그 고백대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복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항상 선한 말을 내야 한다



“선한 말은 꿀 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 16:24)

선한 말은 피곤하고 낙심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한다. 반면 악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며 실족케 하여 사망으로 가게 한다. 혹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상대를 권면한다 하면서 정작 선한 말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은 상대의 큰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영으로 이끌까 생각하며 관대한 마음을 갖고 권면한다. 진리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 감동함 속에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반면에 가벼운 잘못만 보아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지적하고 은근히 돌려 찌르며 비꼬는 말로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또 상대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판단, 정죄하는 말을 내고, 심지어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 아니라 해도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여 상대를 괴롭히거나 성가시게 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마음의 선과 악의 정도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입술의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혹여 나는 가볍게 던지는 농담 속에서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감정 섞인 말이나 짜증이 나오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 외모나 다른 분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을 주변에 알리고 수군수군하지는 않는지 등 자신의 말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다.

그러므로 진리에 합당치 않은 말이 나올 때에는 내 안에 남아 있는 악의 모양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것을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란다.

범사에 화평케 하는 말을 내야 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항해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이다. 그 키가 부러지거나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암초에 부딪혀 파선할 수 있고 광풍에 밀려 화를 당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혀도 작은 지체로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당시 열 지파의 백성은 심한 고역과 짐을 덜어 달라고 왕에게 나와 탄원하였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여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슬픈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대하 10장).

오늘날도 사람이 그 혀를 잘못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일에도 오해를 낳고 이간질이 되어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 라 해도 자기가 낸 말로 인해 불평불만이 나오거나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면서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항상 자기를 희생하고 섬겼다(고전 9:19~23). 권능을 베푸는 사도임에도 이처럼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미를 올려야 한다



“...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 14:28)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 이미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 정혼한 처녀가 잉태한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한다(눅 1장).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개를 통해 하만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함하여 멸망시킬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이에 에스더

는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한 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간다. 자칫 왕의 명령 없이 그 앞에 나아갔다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에 4장).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셨고, 결국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하만은 도리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을 통해 각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신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처럼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p>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p> <p>2 2017 2017.2.5~2.11 주요프로그램안내</p>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의 선 선 6-11 지옥 11-15 전도 1-2 일곱 영 2-3 일곱교회 1-6 육체의 결여 1 창세기 강해 88-94 십자가의 도 21-24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0 권능 스페셜 2 창조와 과학 2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5 내 마음의 찬양 34 모두 드려요 46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상 1 페루 연합대성회 1 믿음으로 걸은 길 30 <p>GCN TV 채널 ktallev tv 882번</p>
---	---	--	--

“파탄 위기의 다문화가정이었지만 이제는 행복이 넘칩니다!”



백상기 집사 (62세, 1대대 1교구)

저는 2004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말도 통하지 않는 데다 문화도 다르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보니 다툼이 잦았습니다. 나이 어린 아내는 견디다 못해 가출도 여러 번 하였지요. 2006년, 아내를 위해 베트남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던 중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신앙생활 하던 중 놀라운 체험을 하였지요. 2013년 겨울, 제 트럭 조수석에 다섯 살 된 아들 현우를 태우고 가던 중 차문이 열리는 바람에 아들이 도로 위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따라오던 버스가 그 위로 지나가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버스의 바퀴 사

이에서 극적으로 보호받아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 일이 있은 뒤, 저희 부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도생활을 시작한 아내는 한층 부드럽게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해 주려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고 주변 성도들이 남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따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고집 세고 까다로운 남편을 만나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내에게 미안해졌고, 아내를 위해 저도 집안일을 조금씩 돕게 되었지요.

2015년 2월, 당회장님께서 설교 중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13년 전 타 교회에 출석할 때 아파트가 팔리면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매된 뒤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11개월에 걸쳐 서원했던 예물을 다 드리게 되었지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다음 달로 일터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직업은 소형트럭으로 퀵서비스를 하는 일인데, 470~480만 원이던 수입이 580~660만 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 오기 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민봉사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구제하기를 즐겨하니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아내 리유 집사는 해외교구 베트남구역 구역장으로, 예배 시 베트남어 통역봉사로 충성하고 있으며, 당회장님 기도로 시력이 좋아지고 양쪽 팔과 손가락 저림도 치료받았습니다. 파탄 직전의 저희 가정이 이처럼 축복받는 보금자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 3m 높이에서 추락, 전복되는 사고에서 보호받았어요!”

조소영 집사 (46세, 3대대 30교구)



2016년 12월 29일, 저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적한 한정식 집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하던 중 3m 높이의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어가 후진 상태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앞으로 가고자 엑셀을 밟으니 빠르게 후진되면서 주차장 뒤편에 쳐놓은 얇은 펜스를 찢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복된 것입니다. 정말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일행의 도움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안정을 취하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요. 머리와 목을 각각 CT,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이동 주차차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오른쪽 눈썹 밑이 찢어졌고, 충격으로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지요. 하지만 신속히 호전되어 3일 후에는 목 보호대를 풀었고 평소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m 높이에서 추락해 전복되면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차 지붕도 완전히 찌그러져 운전자가 머리, 목, 허리 등을 심하게 다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차 안의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제 몸이 다치지 않았으니 생각할수록 놀라지만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목자의 공간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찬양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 축복받았어요!”

하늘 와이바 형제 (22세, 네팔만민교회)



2009년 12월, 저는 삼촌의 전도로 네팔만민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 성인영화를 보곤 하였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흘리며 회개한다 하였지만 한 달이 채 못 갔지요.

그러나 때를 좇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빛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영혼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애痛的 눈물을 보이시니 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찬양을 통해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한국어로 만민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큰 감동이 되어 이혜천 담임목사님에게 한국어로 부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담임목사님은 제가 한글을 보고 소리나는 대로 네팔어로 표기하면 발음을 수정해 주시고 그 밑에 뜻을 적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만민찬양을 한국어로 부를 때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찬탄해졌고, 청년이나 학생, 아동들은 거의 모든 곡을 암기하고 있지요.

저는 만민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구하기 어렵던 직장을 얻게 되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었지요. 또한 각종 문제로 가득하고 불화했던 저희 가족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 평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명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88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